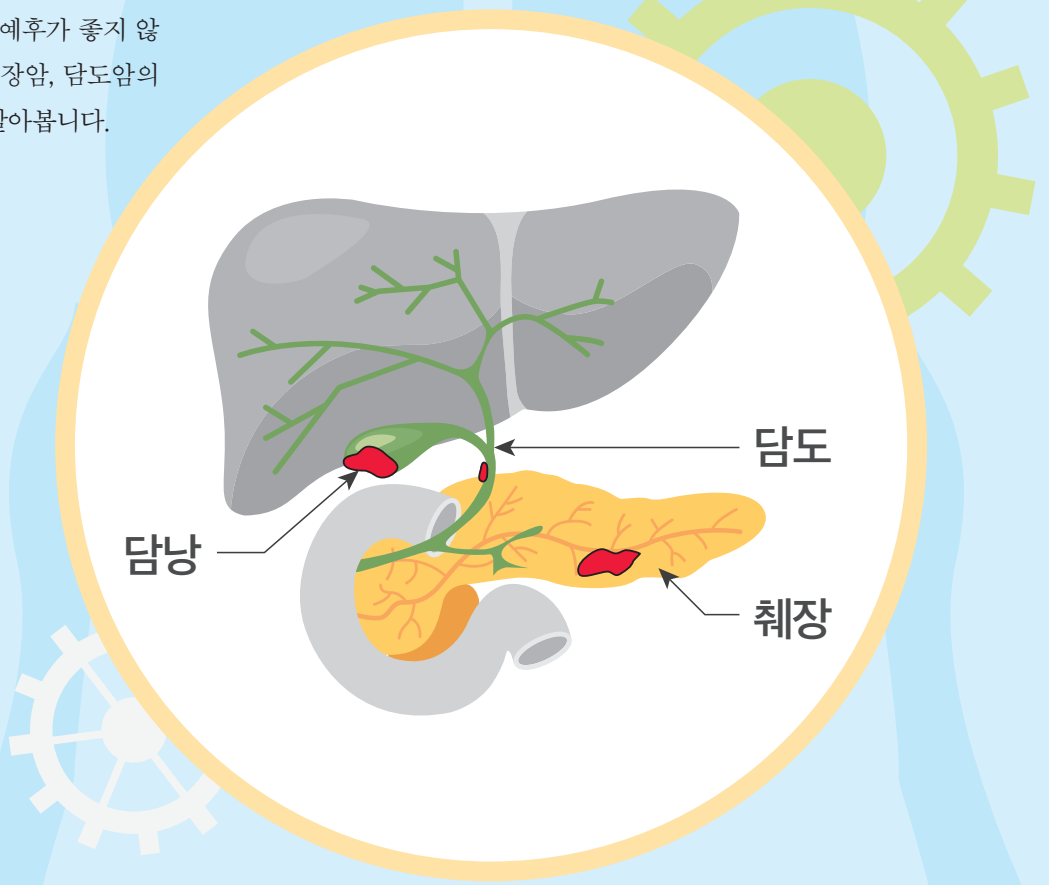


한국인에게 흔한 10대 암 췌장암, 담도암

췌장은 등과 위 사이에 위치한 길이 약 15cm정도, 무게는 약 100g 정도인 가늘고 긴 소시지 모양의 장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도는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소화기관입니다. 담즙은 지방의 분해 및 흡수에 참여하고, 칼슘, 철, 구리 등의 흡수와 콜레스테롤, 지용성 비타민 등의 흡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간에서부터 처리된 노폐물 등을 체외로 내보내는 운반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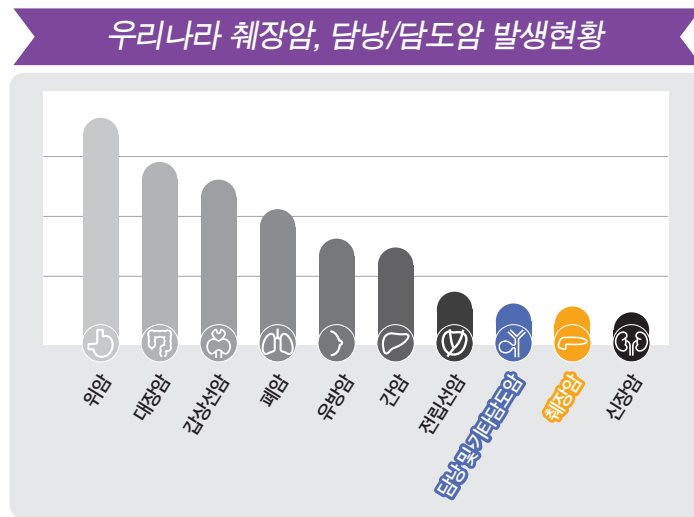
췌장암과 담도암은 낮은 발생률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암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췌장암, 담도암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암 중 **췌장암**과 **담도암**은 각각 3.0%, 2.9%를 차지하며 **암 발생률 중 8, 9위**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초기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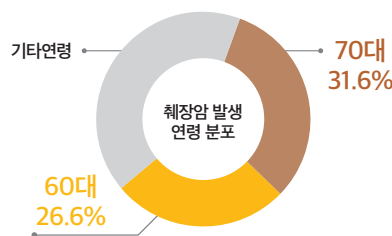
췌장암의 발생에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함께 관여합니다. 유전적 요인 중에는 K-Ras(케이라스)라는 유전자의 이상이 특히 중요합니다. 췌장암의 90% 이상에서 이 유전자의 변형이 발견되어, 모든 암종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이상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흡연, 비만, 당뇨병, 만성 췌장염, 가족성 췌장암, 나이, 음주, 식습관 등이 있습니다. 담도암의 발생 기전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췌장암과 담도암은 암이 커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후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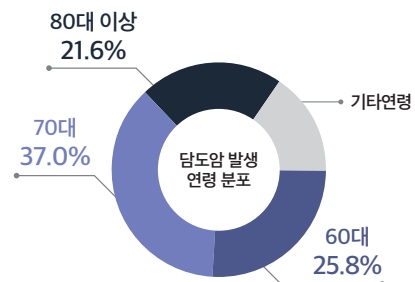


- 담낭 및 기타담도 2.9%, 6,846명 **9위!**
- 췌장 3.0%, 7,032명 **8위!**

췌장암 발생현황



담도암 발생현황



췌장암, 담도암 수술과 치료법

간담췌간이식외과 박동은 교수

학력/경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진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간담췌간이식외과 교수

학회활동

대한외과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세계간담췌외과학회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저서

간담췌외과학 제3판 / 공동집필



췌장암, 담도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재발이 많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어 진단될 당시부터 좌절을 겪고 희망의 끈을 놓는 환자, 보호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수술 기법의 발달과 수술 전후의 보조치료, 항암화학치료 약제의 개선 등을 통하여 충분히 생존 기간의 연장, 나아가 완치의 확률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피하고 환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함께 재발 방지 및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의 치료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속적 추적 진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췌장암의 치료법

췌장암은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 진단됐을 때는 이미 주변의 주요 장기로 전이된 상태여서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방법은 암의 크기, 위치, 병기,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선택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여러 방법을 병합하여 치료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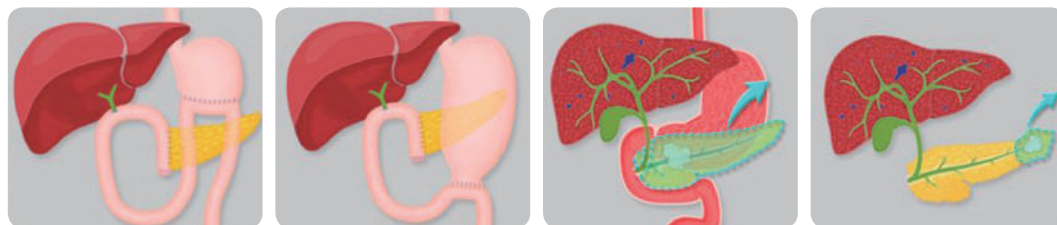
수술은 췌장암의 완치를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실제 췌장암 환자의 20% 내외에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환자들도 담관 폐쇄로 인한 황달이나 십이지장 폐쇄를 해결하거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완화적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통해 증상과 암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췌장암의 수술적 절제술은 암이 췌장에 국한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췌장의 일부분이나 전체, 또는 주변 조직을 함께 절제합니다.

수술적 치료

수술 방법은 췌장 내 암의 위치에 따라 다르며, 암이 췌장의 머리 부분에 생긴 경우 휘플씨(Whipple's) 또는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췌장의 머리 부분과 십이지장, 담도, 위의 일부를 포함하여 크게 절제한 후 소장을 이용하여 다시 문합을 해주는 수술로 비교적 큰 수술에 속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치료기법이 발달하여 합병증의 발생률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췌장의 꼬리 부분에 암이 생긴 경우 원위부 췌절제술을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원위부 췌절제술과 같은 경우는 복강경과 로봇을 통한 수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췌십이지장절제술 또한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췌장암의 수술적 치료방법]



▶ 휘플씨(Whipple's)수술

▶ 유문 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

▶ 췌전절제술

▶ 원위부 췌장 절제술

항암 치료

항암화학치료, 즉 항암제를 사용한 치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되어 있거나 전이를 동반한 경우, 또는 수술 이후에 보조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목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췌장암의 특성상 항암화학치료가 효과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약제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현재는 유의하게 생존 기간의 연장을 나타내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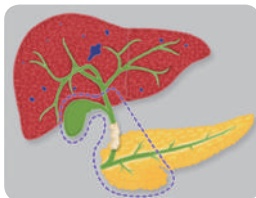
담도암의 치료법

담도암도 마찬가지로 암의 위치에 따라 수술적인 치료 방법의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간 내부에 위치한 담도암의 경우는 해당되는 부위의 간절제술을 주로 시행하게 되겠고 간문부 담관암은 담도의 절제 및 간절제술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 간에서 먼 쪽에 발생한 담도암은 췌장 머리 부위의 암과 마찬가지로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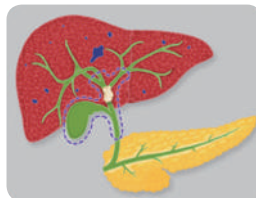
담도암 역시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 진단 당시 이미 주변의 주요 장기로 전이되어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동반된 황달을 경감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절제가 안되는 환자들의 주 사망 원인은 담즙 정체, 담관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황달을 해결하기 위하여 담즙을 배액하는 개복 수술을 하거나 비수술적으로는 내시경 등을 이용하여 스텐트 삽관술이 시행됩니다.

최근 들어 황달은 내시경을 통해서 스텐트(인공관)를 삽입하여 치료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은 경험이 많은 주치의에 의하여 시행될 경우 약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기술과 관련된 사망률은 0.1% 정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경피적 경간담즙배액술을 이용하여 황달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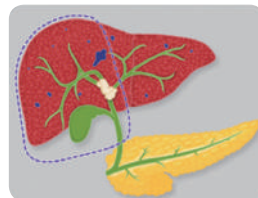
[간외담관암의 위치에 따른 절제술의 형태]



▶ 중,하부담관암: 췌십이지장절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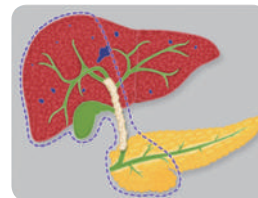
▶ 중부 담관암 또는 Type I, II 간문부암: 간문부담관절제술



▶ Type IIIa 간문부암: 우간담관절제술



▶ Type IIIb 간문부암: 좌간담관절제술



▶ 미만성 담관암: 간췌십이지장절제술

“

암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피하고
환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함께
재발 방지 및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의
치료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속적 추적 진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췌장암, 담도암 수술 후 관리방법

췌장암 환자들은 소화가 잘되지 않아 식욕이 떨어진데다가 치료 도중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울렁거림, 구토, 입안 상처 등으로 인해 음식물을 섭취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영양 상태는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므로 환자에게
체중 변화와 탈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소화
가 잘 되는 부드러운 고열량의 음식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도암 환자들은 복통으로 인해 이미 다른 병원에서 위장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담
당 주치의에게 알려 상의를 하기 바랍니다. 기존의 다른 병으로 인해 드시는 약이 있는 경우에도 반
드시 담당 주치의에게 알려 복용 여부에 대해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약 등은 계속
복용을 해야 합니다.

